

광주시립미술관, 2025 현대미술기획전 ‘그리고, 하루’ ...11월 23일까지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8월호

축적되는 삶,



정성준 작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법'

김선우
문형태
정성준
정승원



정승원 작 '브레멘 #2'

새로운 하루를 포겐다

전시실 작품을 둘러보고 나면 일상의 '하루'가 소중하게 다가온다. 작가들의 하루와 일반인들의 하루는 다소 결이 다를 뿐 '무게'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어쩌면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다.

'하루'의 의미를 깊이있게 사유하고 싶다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에서 펼쳐지는 전시 '그리고, 하루' (오는 11월 23일까지)를 관람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지난 31일 열린 기자간담회는 전시에 투영된 '하루'의 철학적이며 사변적인 의미 등을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전시는 2025 현대미술기획전으로 기획됐으며 현대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서사에 초점을 맞췄다. 김선우, 문형태, 정성준, 정승원 4명 작가의 회화 및

설치 작품 50여 점은 각기 다른 색으로 빛을 받았다.

윤익 관장은 "초대된 4명의 작가는 각기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는 예술가들"이라며 "저마다의 시선으로 구현해낸 오늘의 삶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성과 상상력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시 주제 '그리고, 하루'는 다분히 중의적이며 비유적이다. 이전까지의 삶, 시간의 진행을 전제하며 그 토대 위에 새로운 하루를 포겐다. 오늘의 하루는 내일이 되고, 내일의 하루는 미래로 수렴된다.

서영지 학예사는 "전시실 구성은 수미상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첫 전시실이 현대의 개개인들의 자화상을 투영하고 있다면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선우 작 '오아시스를 꿈꾸며'

'피안, 나를 찾는 항해'를 주제로 한 김선우 작가의 공간에서는 '도도새'의 비상을 볼 수 있다. 정채된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에게 도도새는 목적인 울림을 준다. '피안' (彼岸)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죽음 너머의 세상이 아닌 삶의 방향을 성찰하고 내면의 감각을 회복하려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정승원 작가는 동화적이며 환상적인 기억을 소환한다. 작가의 기억 속의 일상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왜곡되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소소한 일상, 기억의 소환'이라는 주제처럼 지나온 무수한 하루를 유니크하면서도 독창적으로 구현했다. 실크스크린의 복수성과 색의 변수가 빛어내는 서사는 어떤



문형태 작 '함께 읽는 책'

동화보다도 신비롭고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문형태 작가는 '관계, 하나이면서 여럿'을 주제로 관계가 지닌 복잡한 감정을 표현했다. 서 학예사는 "1은 자아, 2는 관계, 3은 가족, 4는 사회, 5는 고독을 의미한다"며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관계와 결이 다른 감성의 층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서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동물의 시선으로 세상을 초점화한 작품들을 만난다. 정성준 작가의 '공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여정'은 더 나은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당위적인 목소리를 우화적이며 동시에 비유적으로 제시한다. 환경, 기후 등 오늘날 화두가 되는 무거운 주제들을 흥미롭게 풀어내는 작가의 시선은 깊고 따스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속 예술공간 '전일빌딩245'에서 만나요

8월 한달간 동남아시아 현대미술·명량이 사진전 등

전일빌딩245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여름 재정에 들어간다. 휴식기 속에서도 전시 프로그램을 열어 시민과의 접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트주전일빌딩사업단(사업단)은 "8월 한 달간 시민문화체험특화 프로그램 'Connected spot-공간'이 재정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지만, 전시는 계속 운영된다.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전일빌딩245 1층 로비에서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반려동물 사진전 '내 생애 첫

전시-내 명량이가 최고야'가 열린다.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물론 조류와 파충류까지 다양한 '명량'들의 모습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에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사진 출품자에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하는 또 하나의 전시는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인사이드 아시아: 연결된 마음'의 연계 전시 'The positioning: 자리매김'. 3층

시민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전시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6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는가'를 탐색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5월 개막 당일에는 아티스트 토크가, 6일에는 기획자와 작가들이 함께하는 전시 투어가 마련된다.

한편 상반기 공간 프로그램은 북토크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지역 교류음악회-우리', '액션! 아트놀이터'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된 큰 호응을 얻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사업단은 오는 9월 재정비를 마친 뒤 하반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일마당 홈페이지 및 SNS,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출판 열기... '문학도시' 광주 출판은? 순례의 고장 영광으로 '남도 체험로드'

지난해 광주출신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광주를 세계적인 문학도시로 가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가 K출판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출판사-독자'로 순환하는 책 생태계를 활성화 해야 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8월호는 'K출판 열기, 광주의 출판은?'을 주제로 준비했다. '문학도시' 광주라고 하지만 아직 출판의 뿌리는 허약한 현실을 짚어보고 출판사 '심미안' 송광웅 대표에게서 지역 출판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을 듣는다. 역대 최대 15만 명 관람으로 'K-출판'의 인기를 실감케 한 서울국제도서전의 풍경도 돌아본다.

기획연재 '공간의 재발견' 코너는 휴가철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안내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최근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과 역사, 현대가 어우러진 '한지붕 세가족'의 독특한 스타일이 젊은 세대들의 감각에 들어맞은 것이다. '도심 속 외딴 섬'에서 10년 만에 서울의 명소로 변신하게 된 서울관의 매력에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계절. 뜨거운 태양 아래를 피하듯 사람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린다. 해가 지는 순간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 투어' 테마는 '낮보다 아름다운 남도의 밤, 별빛따라 한여름 밤(야)한여행'이다.

남도의 여름밤은 빛으로 가득하다. 바다위를 누비는 분수쇼, 다리 위를 흐르는 LED 조명, 정원과 섬에 머무는 별빛까지... 여행자들의 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전남의 야경 명소를 소개한다.

'남도 체험로드' 코너는 종교 순례와 여름의 낭만, 그 길을 따라 영광으로 향한다.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영광은 4대 종교의 순례가 공존하는 순례의 고장이자, 섬마을의 낭만이 깃든 남도의 시간여행지다. 영광의 여름은 조용하면서도 활기가 넘친다. 내 몸에 힐링을 전하는 물무산 행복숲,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웃음이 넘치는 가마미 해수욕장과 송이도 해수욕장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광군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운영 중인 '작은미술관' 현장과 대한민국 1인 장무극의 선구자 공옥진 선생의 생애 활동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공옥진 기념관'도 둘러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이곳 영광에서 무더운 여름의 침표를 찍어보는 건 어떨까.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는 국내 외 거장과 고미술 컬렉션 16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보성 우중미술관이 주인공이다. 시골미술관이라고 자칫 만만히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에서부터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페르낭 레제, 호안 미로, 쿠사마 야요이, 나라 요시토모, 베르나르 뷔페 등 세계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장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내 작가들의 면면도 이보다 화려할 수 없다. 건축물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우중미술관으로 미술나들이를 떠나보자.

이외에 소재원·환벽당이 가까이 자리해 '일동지삼승'으로 불렸던 담양 식영정, 전통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흐르는 '엑스뮤직페스티벌' 소식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 제막식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지난 1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홍보관 제막식이 열렸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는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디자인의 본질에 다가갈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홍보관 제막식에는 윤범모 광주비엔날

레 대표이사, 최수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이사회, 광주비엔날레 후원사인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표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시 주제 이미지(EIP, Event Identity Programs)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조형물 제작식, 전시 제목 채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은 공식 개막 전일인 8월 29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